

大學入試制度에 관한 提言

全 炳 梓

(延世大 社會學科)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학생의 우열을 가리는 선발기능과 아울러 학생들의 상이한 소질과 적성을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에 끌고루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세 문교부장관이 들어서면서 대학입시제도는 다시 수술대 위에 올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제도의 선발배치기능이 막중한 사회에서는 대학입시란 옛날의 과거시험과 같이 출세와 직결되는 것이다. 거지의 자식이라도 일류대학만 졸업하면 상류사회로의 진출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류대학의 인기학과에 합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학과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소질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전국에서 몇 제 가는 승리자라는 일종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 같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대학에서의 학업과는 크게 상관 없이 그 대학 그 학과의 졸업생이라는 '신분' 만으로 응분의 사회적인 대우가 보장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선발배치기능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제도는 그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사회계층화적 기능의 차원에서 그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비합리성과 부조리성은 우리 사회의 배분적 정의 그 자체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은 신화처럼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회적 회소가치의 분배과정에서 접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며, 대학입시제도의 비합리성은 어느 정도 용인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은 절대로 묵인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이다. 따라서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은 정치체제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입학제도의 비합리성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체제 그 자체의 합리성 여부까지도 비판받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한 세 문교부장관의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II

대학입시가 그 교육적 기능은 무시된 채 오로

지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선발배치기능의 차원에서만 문제시되면 대학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시들어져 버리게 된다.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통해서 응분의 자격은 이미 따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에서의 새로운 배움에는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대학을 들어온 후에 하는 공부는 주로 각종의 시험에서 나오되지 않고 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한 몸부림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적으로 탐구해야 할 대학에서 학생들이 오로지 시험성적에 의한 보다 유리한 평가에만 급급한다면 고등교육의 창조적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의 창의성 위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적성을 가리는 구실을 가장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공정성의 원칙에 절미적으로 구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성보다는 시험점수에 입각한 우열의 분명한 판단을 입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고 학생 각자의 적성에 알맞는 대학교육은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왜 특정대학의 특정학과가 가장 인기있는 학과로 되고 있으며, 수많은 대학, 수많은 학과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고 있는 서열성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따로 연구해 볼 문제이거나 대학의 학과들이 이와 같이 단일 차원에서 그 우열이 평가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험 점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인기있는 학과만을 찾아서 헤매게 되면 특정학과의 특성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이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응분의 자격증을 주어서 서열적으로 사회에 배치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들 젊은이에게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게 하는 고등교육기관 본연의 자세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입시제도가 대학에서 마련되고 있는 다양한 전공과 입시준비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우수한 학생들은 인기학과에 모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비인기학과로 가는 여태까지의 입시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 후에 자기가 들어온 학과에서 하는 공부에 별로 마음을 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전공선택에 자신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자신의 보다 개인적인 꿈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기가 높고 졸업 후에 취직이 잘 되거나 출세길이 넓게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에 들어가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 나머지 학과들 중에서 자신의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의 입시제도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들어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자신의 전공학문에 대한 열성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의 강의에는 별로 깊은 관심이 없이 대학의 4년간을 지적으로 방황만 하다가 졸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입시제도의 부조리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작용은 대학이 대학 본연의 창조적인 학문발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대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지식을 연마하지 못한 채로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공부한 것도 없는 상태로 부응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III

여태까지의 대학입시제도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입시제도의 개선과 운영 방향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선발배치기능이라는 한국적 교육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둘째로는 학생의 우열을 가리는 기능과 아울러 대학의 다양한 학과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으로 끌고루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번째 기능에

만 집착했기 때문에 대학의 참다운 교육은 시들어져 가고 있고, 또 사회적 가치의 희일화 속에서 학문적 다양성을 동해서 확보될 수 있는 사회적 탄력과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있고 참다운 사회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관한 매스컴과 향간의 여론들을 들어 보면 현행의 제도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전의 소위 선지원 후시험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꽤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옛날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는 필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이전의 선지원 후시험제도에서는 확실히 요사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눈치작전이라는 병폐는 없었다. 그러나 이전의 제도에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택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점을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전의 선지원 후시험제도에도 요행심리는 작용했지만 현행의 제도에서처럼 그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100명이 정원인 학과에 1,000명이 지원해서 900명은 결국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선지원 후시험식의 구입시제도 속에서 붙을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줄 알면서도 응시한 대부분의 지망생의 심리에는 요행성이 없었던 말인가?

무엇보다도 선지원 후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재수생들을 무더기로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일류 대학에 시험을 치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는 합격하는 율보다는 떨어지는 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원 제도이다.

필자가 10여 년전에 입시감독을 하다가 한 학생이 시험중 졸도한 사건을 목격하고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쓴 글이 '졸업정원제'라는 제목으로 모일간지의 칼럼에 실린 일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단 일회의 시험으로 한 학생의 인생을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대학 4년 동안의 학업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면서 졸업을 엄격하게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어떻게 해서 졸업정원제가 대학에서 채택되었다가

영똥한 오해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부수적인 보완책이 제대로 강구되어 보지도 못한 채 졸업정원제는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다.

졸업정원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에 적절한 입학제도가 따라서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대학에서의 학업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셋째로는 특정 학과에서 도중 탈락되는 학생들이 자기가 실패한 학과보다는 다소 쉬운 대학에 편입되어 졸업할 수 있는 편입학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한다. 교육행정이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채택된 제도를 백지로 돌리는 일은 더욱 더 삼가야 하는 것이다.

IV

이제 장황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결론적으로 입시제도에 관한 필자의 입장에서 밝힌다면 선지원 후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된 현행의 선시험 후지원제도를 폐기하고 구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역사를 거슬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행제도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눈치작전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큰 문제거리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행제도의 뼈대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의 선시험 후지원제도의 개선책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는 인문·사회와 자연의 두 계열로 구분되어 있는 전공계열을 더욱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다양한 학과들을 종망라하여 비슷한 내용의 학과끼리 묶어서 소계열화한 후에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중 어느 한 계열에 먼저 지원하도록 한 후에 현행과 같은 예비시험을 치게 하고 그 다음 자기의 성적에 알맞는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게 하는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즉 선지원 후시험제도와 선시험 후지원제도의 장점들을 살려서 지원을 먼저 하게 하되 특정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전공에 먼저 지원하게 하는 것

이다. 전공계열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그 외에 교육내용이나 교육행정의 실리와 편의에 입각해서 다른 분류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문제는 응시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할 분야를 먼저 정하게 한 다음, 시험을 치게 하고 그 시험의 결과를 보고 적당한 수준의 대학에 접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험은 각 계열마다 다를 필요는 없고 현재대로 인문·사회와 자연계열간의 차이만 반영시켜도 좋다. 그리고 금년부터 채택하기로 한 논술형 시험문제로는 아예 대학에서 자신이 택하기로 한 전공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전공을 택하게 된 동기, 장래의 포부 등을 쓰게 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생을 위해서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각 전공학문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오리엔테이션제도이다. 고등학교가 현재와 같이 대학입시를 위한 퀴즈식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의 문제와 아울러 학문과 인생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마땅되고 있는 각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는 지망생의 전공선택에 관한 논술시험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태까지의 입시가 전공 위주가 아닌 대학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전공 위주의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험 후에 자신의 전공을 바꾸어 입학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적절한 감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소계열화한 전공을 먼저 지원하게 하면 현재와 같은 눈치작전은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을 치 후에 자신의 성격에 알맞는 대학의 학과에 지망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의 실패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옛날의 선지원 후시험제도에서와 같은 시험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만 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각 분야에 고루 유도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가장 우수한 두뇌의 학생들이 오로지 한두 학과에만 몰리는 것은 학생 개인의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나 국가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해로운 현상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면 기대되는 또 다른 소득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함으로써 교육투자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학과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병폐로 되어 오고 있는 소위 일류대학병이 자연히 치유될 수도 있다.

V

전공 중심의 이러한 입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중요한 조치는 대학 정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정원은 순수학문계의 학과는 대폭으로 줄이고 응용과학분야는 정원에 융통성을 두면서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순수과학의 경우에는 정원을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장학금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함으로써 우리나라 학문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고 또 학계로의 진출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응용과학분야의 정원은 그때 그때의 전공별 지원 현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정해도 좋을 것이다. 대학 정원을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면 우수한 인재의 낭비도 막을 수가 있고 입학의 치열한 경쟁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여태까지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은 출세주의에 입각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학생의 관심과 대학에서의 강의가 따로 늘고 있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사회에서의 활동이 따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수한 대학의 졸업생들은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인격적인 성장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지장을 받고 있는가 하면 세칭 이류·삼류 대학생들은 평생을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행입시제도에서 비롯되는 전공선택 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이 개인들의 적성을 오도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평생을 자신의 적성을 살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고 있다.

전공을 지금의 인문·사회와 자연의 두 가지 계열에서 학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세 개의 전공을 한 계열로 하여 많은 계열로 구분한 후 시험 전에 이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제도를 택하더라도 한 계열 속의 두세 개 전공간의 눈치작전은 계속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치작전에 비하면 그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정도의 눈치작전도 없어지는 것이 좋다면 아예 이전에 있다가 없어진 계열별 입학제도를 아울러 부활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온 후에 그 계열의 여러 전공들을 두루 섭렵해 본 후에 3학년 올라갈 때쯤 해서 전공을 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전공계열별 선지원 다음에 시험을 치게 하고 자기의 성적에 알맞는 대학을 택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대학간의 우열현상은 현재의 상태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대학이 특정분야를 치중하는 투자방식을 택한다면 대학간의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서열성은 극복될 수도 있다.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대학간 평준화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나 정부에서도 일류대학생을 극복하고 특정분야의 신규채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의 해당 학과에 추천의뢰를 하는 방식을 택하면 현재와 같은 일류대학병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대학의 전공과 사회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보다 실질적인 산학협동도 가능

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시설투자가 많이 드는 의학, 공학 등의 분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국립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인문사회 등의 시설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분야는 사립대학에서 육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이다.

VI

끝으로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이나 기타 사회정책과는 달리 정책적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백년 후에나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개선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소폭의 개선을 자주 함으로써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비롯한 기타 교육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뒤엎고 이전의 제도로 환원하는 대신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에다가 세분화된 전공별 선지원 방식만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교육학 전공도 아니고 입시제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해온 바도 없다. 다만 세 학생의 아버지로서 남 못지 않게 입시제도에 관심은 많다. 이 글에서 언급된 생각들은 오랜 연구를 거쳐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다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끌어낸 것들이다. 앞으로 입시문제가 본격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전문가들의 보다 훌륭한 결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글은 다만 이들의 생각에 다소의 도움이 되거나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